

팜유, 수요 회복으로 600달러 위협

팜오일협회, 2009년 550-600달러 유지 ... 바이오연료 사용확대로 호전

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2009년 팜유 가격이 톤당 600달러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일간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, 팜유 가격은 2008년 말 400달러까지 추락했다가 최근 550달러로 회복됐으며, 국제시장에서 팜유 재고가 감소함에 따라 2009년에는 550-6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팜오일협회 데롬 방운 회장은 “유럽에서 2008년 겨울에 팜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해 2009년 1월 들어 가격이 상승했다”며 “2008년 상반기만큼 시장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하반기 침체 때보다는 상황이 호전됐다”고 진단했다.

또 생산자들이 팜유 내수 판매를 늘리고 수출을 줄여서 국제시장에 과잉공급을 막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팜오일협회에 따르면, 2009년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량 목표는 2000만톤으로 이중 400만-550만톤을 내수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.

정부가 바이오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리터당 보조금 1000루피아(120원)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내수판매량이 500만-650만톤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2008년 인도네시아는 팜유 1850만톤을 생산해 이중 1450만톤을 유럽을 포함한 세계 100여개 국가에 수출했으며, 2009년에는 동유럽으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02>